

□ 북안면

*고지리

고지는 지금부터 약 90여년전 마을이 개척되면서부터 마을 모양이 창고와 비슷하다 해서 불리어 졌다 한다. 원래 영천군 비소면에 속해 있었다. 八岩은 마을 앞에 바위 8개가 있다. 중국의 진시 황이 만리장성을 쌓을때 회초리로 바위를 몰고 가다가 城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둔 것이라 전한다. 지경은 옛날 영천과 경주의 경계지이기에 생긴 이름이다. 1914년 읍면통합시 고지, 新溪, 八岩의 일부와 경주군 서면 일부가 합해서 고지리가 된 것이다.

*당리

당리는 원래 영천군 原谷面이었으며 면소재지였다. 사룡산 밑에 신당이 있었으므로 堂里라 했다. 또는 金夫洞이라고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변경시 북안면에 편입시켰으며 마을 개척은 서기 1590년대라 전해온다. 中里는 들 중앙에 있으며 예부터 취락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다른 자연 부락에 비하면 가장 큰 마을이다.

*도유리

도유리는 原谷面 의 한 지역으로 경주에서 서울로 가는 한 길목이었다. 그래서 도유리라 했으며 약 500여년전에 개척했다고 전한다. 도유지는 북안면 전체의 농업용수가 되었으며 수량이 매우 많다. 윗마을에는 김해 김씨가 주성이며 12가구이고 아랫마을에는 여러 성씨들이 모인 마을이다. 광릉은 광주 이씨 시조인 李 唐선생의 묘가 능처럼 생겼기에 廣陵이라 한다.

*도천리

괴화마을에는 회화나무가 많으며 마을이 처음 개척되기는 아마 고려이전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조선 선조대왕때 노계 박인으로 선생께서 살았으며 도천리에는 최근에 생긴 마을로 팔골이 있다. 연당은 1592년에 朴世基라는 선비가 마을을 개척했다하며, 마을 중심에 연못이 있었다고 전한다.

*명주리

명주리는 영천군 원곡면에 속했으며 강변 마을이 있다. 들밭은 가장 넓은 곳에 위치하고 새터는 서쪽에 넓은 보가 있다. 용주는 시장터였으며 옛날에는 경주군, 청도군, 대창면 사람들로 붐볐다. 倉基는 옛날 곡물을 저장해둔 창고가 있었다고 하고, 무기창고가 있었다고도 전한다. 1915년 명주와 용주 두 마을이 합하여져서 되었으며 이 마을은 원곡면 소재지였다.

*반계리

마을이 개척되기는 지금부터 약 600여년전 고려시대라 전한다. 넓은 들과 아름다운 주위환경, 깨끗한 시내가 있으며 이곳에 있는 盤石은 그 類를 타처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이기에 반계라 했다 한다.

*북리

북리는 본래 원곡면의 지역으로 羅峴과 합하여 1914년 개편된 마을이며 세골은 구룡산 밑에서

큰 마을까지 길고도 좁은 계곡이 약 500m나 되며 대리는 가장 큰 마을로 옛날에 큰 집이 있었다고 전한다. 北리는 북골이라고도 하는데, 마을 모양이 벼는 "북"처럼 생겼다하여 지은 이름이기도 한다. 상마을 또는 大리는 북동의 안쪽에 있다하여 상마을이라고 하며 현재 월성 김씨가 가장 많고 전체 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상리

上리는 옛날에는 영천군 原谷面이었던 지역인데 1914년에 인근 마을을 병합하여 四里라 하였다. "四"자가 불길하다고 하여 上리로 고치고 북안면에 편입시켰다. 못마을 또는 柑洞은 예부터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신촌은 김녕 김씨 칠대조께서 감동에서 분가하여 이 곳에 정착했다 한다. 양지촌은 가장 일찍 부터 인류가 정착한 듯한 곳이기도 하다. 여러 성씨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김녕 김씨가 가장 많이 사는 집성촌은 新村이다. 굽말 또는 굽말은 마을 깊은 곳에 위치한다하여 지은 이름이다.

*서당리

원래 영천군 比召面에 속했으며 서당, 오산, 冷井의 일부가 합하여 서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서당리가 되었다. 冷井리는 서당골 북쪽에 있으며 冷水가 솟아나는 샘이 있다하여 냉정이라 했으며 현재도 그대로 식수로 이용한다. 김해 김씨가 주 성이다. 明村은 서당골에서 냉정으로 넘어가는 산 기슭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명촌이라 했다한다. 서당골은 比召面 지역으로 서당을 세우고 인근마을의 학동들을 수학하게 했다하며 김해김씨가 主姓이다.

*신대리

범배기들 : 현재 몇집이 살고 있는데 갑오년에 흉년이 들었을때 이 곳에 살던 한 농부가 범벅죽(호박죽) 한 그릇을 얻어 먹고 논 한 마지기를 주었다 하여 이 마을을 범배기들이라고 한다. 두리봉 : 현재 3가구가 살고 있으며 둥그스름한 두리산 밑에 있다 하여 생김이름이다. 지금부터 약 600여년전에 개척된 마을이라 전한다. 새터, 새마을 : 박씨와 김씨가 50여 가구 살고 있으며 광복 전 두리못의 확장으로 마을이 모두 두리봉 못 밖으로 나와 새마을을 이루었다고 새터라 한다.

*신리리

新里와 新坪 일부가 이 마을에 속한다. 신리 또는 신촌은 1480년경, 영천군 比召面의 成以直선생이 개척하여 새마실이라고 했다. 창녕 성씨가 27가구이며 晚川精舍가 있는데 경재 성이직 선생이 도원도찰방 재직중 병자호란이 일어나자당시의 굴욕을 개탄하여 조용히 산림에 은거하여 후학육성에 전력했다. 황무지를 개척하여 마을을 형성했다 하며 총 24가구가 살고 있으며 진주 하씨가 주성이다. 노리미는 뒷산의 모양이 노루모양이고 이 마을은 그 꼬리부위에 위치한다 해서 지은 이름이다.

*옥천리

구전되는 바에 의하면 이 곳에 신라시대에 사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으로 기와, 옹기 등이 발견되고 있다. 옛날에 이 곳에는 버드나무가 많았기에 오류골이라 불렀는데 이 곳에 마을이 들어서자 마을 이름을 오류골이라 불렀다 한다.

***임포리**

월성 이씨들이 약 800여년전에 개척했다한다. 개척당시 마을 앞 삼변에 울창한 버들숲이 있었다 하여 林浦라 칭했다하며 고려 현종시에는 경주에 속했다가 태종 14년에 영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서 比召面의 팔암리를 병합하여 임포리라 했다. 새각단은 산밑의 마을로 , 새로 조성된 마을이라 새각단이라했다하며, 뒤에는 청용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절은 신앙심이 강한 어느 부인이 건립한 절이라